

이주여성 삶·기억의 아카이브*

Archives of Migrant Women's Life Memories*

이경래(Kyong Rae Lee)

E-mail: kyongrae@gmail.com

한신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협) 강사



논문접수 2025.01.27

최초심사 2025.02.02

게재확정 2025.02.18

ORCID

Kyong Rae Lee
<https://orcid.org/0000-0001-6995-1574>

초 록

본 연구는 이주노동과 국제결혼 등 한국에 정착한 이주여성이 정착 과정에서 새롭게 구성하는 이주문화, 다문화적 가치, 사회관계에 대해 기록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어떻게 다문화적 삶의 기억과 기록의 가치로 재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적·이론적 방법론을 모색한다. 분석에서는, 먼저 우리의 공적 기록 관행이 여전히 이주여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타자에 대해 대단히 협소하거나 제한된 시선 속에서 기록을 재현해왔음을 살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법으로서, 출처주의의 확장된 논의에 기반해 기록 주체가 재현 대상인 이주여성을 둘러싼 사회적·문화적 맥락으로서 ‘에스니시티’와 ‘젠더’를 이주여성 아카이브의 핵심 출처로 보는 이론적 프레임을 제안한다. 더불어, ‘스튜어드십’이라는 기록 보관의 개념 프레임을 통해 기록관과 이주여성 공동체가 지속적인 상호 협업에 기반해 기록관행을 만들어 나가는 공생의 기록 보관방식을 강조한다.

ABSTRACT

This study assigns archival significance to the migrant culture, multicultural values, and social relationships that migrant women in Korea, including migrant workers and those in international marriages, establish during the settlement process. It explores methodological concepts and theories to reinterpret these as the value of multicultural living memory and records. The findings reveal that existing public record management practices have reproduced records from a narrow and limited perspective on marginalized social groups, particularly migrant women. An expanded discussion of provenance-based theory proposes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considers “ethnicity” and “gender” as core provenances of migrant women’s archives, reflecting 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surrounding their records. In addition, the archival concept of “stewardship” is introduced, emphasizing a symbiotic archiving approach in which the archives and the migrant women’s communities engage in continuous cooperation to develop archiving practices.

Keywords: 이주여성, 에스니시티, 젠더, 출처주의, 스튜어드십

Migrant Women, Ethnicity, Gender, Principle of Provenance, Stewardship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7038499)

1. 들어가는 글

1.1 연구목적

한국은 이제 다인종·다문화가 공존하는 사회가 되었다. 이주노동력의 유입은 1980년대 후반부터 가시화되었으나,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다(송형주, 2014, 192-193). 이 시기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줄 방편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었고, 이주민들의 규모와 다양성에서 큰 성장을 보였다. 이제 이주 문제는 단순히 국가 간 교류나 이동의 차원을 넘어 글로벌 탈경계 시대를 살아가는 다인종·다문화의 호혜적 공존의 문제가 됐다.

1990년대 이후 범 세계화, 국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계층 양극화 등으로 인해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 현상이 동반 심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와 함께 이주의 여성화가 본격화됐다. 이주의 여성화는 이주 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과거에는 주로 남성 노동자 중심으로 이주가 일어났다면, 최근에는 성비에 있어서 여성이 이주 과정을 주도하는 경향을 일컫는다. 이제 이주여성의 한국 사회 참여 수준과 범위는 국제결혼 등에 의해 가정을 이루는 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돌봄 등 서비스 노동 인력시장과 여타 사회, 문화 영역에까지 확산 일로에 있다(황정미, 2009, 3-4).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여성은 전체 이주 집단 내에서도 소외된 최하층에 위치하며 가시화되지 못하다는 데 있다. 대체로 정책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들의 경험과 이해가 제도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이선주, 2006, 1-2). 우리 사회에서 이주여성들은 대체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기에 취약한 지위를 경험하게 되는 경향이 크다. 이주여성은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머물러 있지만, 정반대로 대단히 역동적인 주체성을 지닌 존재이기도 하다. 한국인의 배우자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어머니이며, 자주 노동자 신분이며, 때로는 준 한국인 혹은 외국인이며, 합법·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사적·공적 공간을 넘나들며 정해진 경계를 허무는 강인하고 역동적인 주체인 것이다(송형주, 2014, 192-193).

그래서, 이제 더는 이주여성의 문제를 단순히 국제교류나 이민국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주여성을 바라보고 그들과 상호 호혜적 공존과 상생의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록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주여성을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 일 주체로 바라보면서 이들의 사회문화적 정체성과 국내 정착의 역사 기록을 동시대 한국 기록 서술의 일부로 대등하게 기입하는 근원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는 이주여성의 다문화 2세대로 성장하고 있는 그들 자녀의 다인종적이고 다문화적 근원과 정체성의 확립 문제와도 직결된다. 다시 말해, 이주여성 자신이 다문화 자녀들을 낳고 기르면서 고유의 민족 정체성을 표방하고 자녀들 또한 다문화적 정체성의 근간인 ‘어머니’의 모국과 삶·기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이주여성 공동체에 대한 체계적 기록화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어렵게 이주하여 정착하고 삶을 영위해 왔던 정착 과정, 다문화적 근원과 마찰 과정, 이주여성이자 어머니의 일상 삶, 다문화 2세와의 유대와 소외 등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아카이브의 구성이 절실하다. 그래서, 이주여성 공동체의 집단 기억의 수집과 복원을 위한 ‘이주여성 삶·기억의 아카이브’를 구성하는 일은, 이주여성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후세대 자녀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효과적인 다문화 교육 자원이자 궁극적으로 ‘우리’의 일부로서 이주여성 공동체의 다문화 정체성 확립에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통해 이주노동과 국제결혼 등 한국에 정착한 이주여성들이 모국과 이주국의 문화를 동시에 참조하면서 정착 과정에서 새롭게 구성하는 이주문화, 다문화적 가치, 사회관계에 대해 기록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어떻게 다문화적 삶의 기억과 기록의 가치로 재해석하고 공유하고 기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적·이론적 방법론을 탐구한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사회적 소수자와 함께 하는 다문화적 가치

를 존중하는 공존과 공생의 ‘샐러드’ 모델에 기반하여 이주여성의 삶·기억을 기록 역사적으로 가치화하는 작업에 초점을 둔다. 무엇보다, 평등과 민주주의, 그리고 이른바 ‘다름다움’에 기초한 다문화주의에 근거하여, 한국 사회 이주여성의 문제를 그들이 아닌 ‘우리’ 자신의 문제로서 접근할 것을 강조한다.

1.2 선행연구 분석

2024년 국내 거주 외국인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4.8%로,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8%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행정안전부, 2024). 통상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5%를 넘으면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4.8%의 수치는 한국 사회가 이미 공식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다문화사회로 전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주민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는 드물다. 먼저 기록학적 상황을 살펴보면, 최근에서야 공적 기록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민간에서의 다양한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영미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민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과 달리, 국내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는 주로 로컬리티(locality)에 기반한 공동체, 즉 마을이나 지역 공동체 아카이브에 관한 주제가 대부분이란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즉 이주민과 이주여성 아카이브 연구는 수적으로 상당히 드물다고 볼 수 있다. 드문 가운데서도, 이주여성의 기록화 작업 연구와 관련해 유의미한 몇 가지 선행연구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관련 사례 분석을 통해 이주공동체 혹은 다문화공동체 아카이브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록학 논의들이 주목할 만하다. 예컨대, 최재희(2013)는 영국 다문화사회의 현황을 살피는 것과 더불어, 지난 200여 년간 영국으로의 이민과 관련된 기록을 수집하고 이를 교육에 활용하려는 영국국가기록원(The National Archives, 이하 TNA)의 ‘무빙 히어(Moving Here)’ 컬렉션을 소개한다. 그는 연구에서 아카이브가 다른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고 관용과 존중을 촉진하며 사회통합과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 ‘다문화 아카이브’와 같은 이주공동체 아카이브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그는 TNA가 이주공동체의 대상화나 타자화를 극복하기 위해 이민자 스스로가 자신의 기록과 이야기를 제공하는 쌍방향 수집과 참여 아카이브라는 점에 주목했다.

다음으로, 이슬비(2012)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차별적임을 지적한다. 그는 사회적 배제를 겪는 다문화공동체에 대한 기록화를 통한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주목한다. 저자는 사례 분석에서 국내 최대 외국인 밀집 지역인 안산을 중심으로 기록화 전략을 수립하고, 수집된 기록을 통합서비스할 수 있는 다문화 아카이브 포털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다큐멘테이션 전략(documentation strategy)을 적용하여, 자문 조직의 구성에서부터 실행 조직, 기록관 운영 주체 등 이주민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실무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정신혜(2020)는 한국 사회 속에서 그 어떤 문화권보다 강력한 문화충돌에 직면한 국내 이슬람 이주공동체에 주목한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이종 문화 사이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이슬람 이주공동체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이슬람 이주공동체 아카이브의 구축 및 활용을 제안한다. 더불어, 그는 이슬람 이주공동체 아카이브의 구축 주체, 기록 수집방안, 기록의 범주, 기록의 분류 방안을 제시하고, 교육적 측면에서 이슬람 이주공동체 아카이브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도서관학계를 살펴보면, 다문화 아카이브 구축의 실용주의적 방법에 관한 다각적인 논의가 눈에 띈다. 가령, 조용완(2016)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맞아 다문화 관련 기관과 공공도서관이 협력적 아카이빙 활동을 위해 관련 자료에 대한 수집과 조직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한다. 그는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시청 다문화팀, 다문화 관련 센터와 시민단체, 공공도서관 등 총 12곳을 대상으로 다문화 아카이브의 구체적 생산현황을 조망했다. 신난희(2015)는 대학 내 다문화 연구기관이 주도하는 생활세계 기반의 다문화 아카이브 구축을 제안하면서, 다문화

연구진의 연구성과와 관련 기록을 한 축으로 하고, 이주민의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정보와 이주민 모국 관련 기록을 다른 한 축으로 해서, 다문화 아카이브를 포괄적으로 구축할 것을 제시한다. 조용완(2017)은 국내 도서관들의 다문화 아카이브 구축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해외 다문화 및 소수 인종 관련 선진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아카이브의 참여 기관, 대상 기록물 유형, 원문 구축 과정 및 파일 형식, 기록물 관리시스템과 메타데이터 등 실질적 다문화 아카이브 구축방안을 제안한다.

여성 아카이브의 구체적 위상에 대한 논의는, 기록학계나 도서관학계보다는 오히려 여성학이나 여성사 또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예를 들어, 김영란, 2006; 김혜순, 2008; 민가영, 2011; 이은아, 2013 참고). 하지만, 이들 논의는 대체로 원론적인 수준에서 기억의 기록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실상 기존의 남성중심주의적인 아카이브 구축 방법론에서 벗어나 여성 중심의 아카이브 서사의 실제적인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론 모색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나마 성과라 한다면, 여성사 및 여성학 분야에서의 노력에 힘입어, 여성가족부가 지난 2002년 여성사 기록의 취지로 ‘국립여성사전시관’을 건립한 일이라 할 것이다. 전시관은 여성사를 크게 교육, 운동, 노동, 일상, 예술 등의 하위 주제로 나누고, 각 주제 영역에서 대표 여성들을 선정해 이들의 구술을 채록해 아카이빙하는 작업을 행했다. 이주여성과 직접적으로 관련해서는, 상설 전시관은 아니었지만 2007년 특별기획전 “여성과 이주: 100년간의 닻선 女行” 또한 중국, 필리핀, 베트남, 몽고 등지에서 건너온 이주여성의 모습을 그들 자신이 직접 제작한 작품을 중심으로 재현했던 사례를 언급할 수 있겠다.¹⁾

2000년대 말 한국 사회에서 성 인지 감수성의 변화를 크게 이끌었던 미투 운동의 사회사적 계기로 인해 페미니즘 운동이 확장을 맞이하고 여성의 사회적 활동과 여성에 대한 억압적 구조와 저항을 담아내려는 여성 아카이브의 기록행위에 주목하기 시작했지만, 기록학 학문 자장 안에서 여성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는 다른 주제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국내 기록학 영역에서 여성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를 거의 처음 시작한 백영주와 김수자(2005)는, 여성정책 및 여성단체의 기록을 그 보존 대상으로 설정하고 보존현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통합적인 관리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들 공저자의 보존을 중심에 둔 논지는, 여성단체 기록물의 관리 실태를 분석하면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안한 신혜정(2008)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한편 김광미(2013)는 여성 기록화의 빈틈을 채워줄 구술 기록의 생산을 강조하기는 하나, 여성 기록의 체계적인 생산에 대한 논의까지 담고 있지는 않다. 그 외에, 국내 여성 아카이브에 대한 학문적 논의의 한계와 유사하게 여성 아카이브 전시에서 그 취약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가령, 국가기록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여성을 주제로 한 전시(기획전 2013. 9. 5.~ 2015. 6. 30)에서 여성은 모성애적 대상 또는 역사 속 희생자로서 그려지고 여성을 일종의 전시 ‘테마’로 접근하면서, 대상화된 여성 응시는 물론이고 여성 인권과 여성 기록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기도 했다.

2016년 ‘강남역 묻지마 여성 살인사건’ 등 사회사적 사건들이 여성들의 젠더 의식 전환의 계기가 되면서, 우리 사회 페미니즘에 관한 관심이 촉발했고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여성 아카이브의 논의나 연구 접근이 크게 활성화되고 진지해지기 시작했다. 가령, 이운재(2017)는 성차별 기록에 주목하였고, 임다은(2017)은 강남역 묻지마 여성 살해사건의 SNS 기록을 아카이빙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김은지(2018)는 페미니즘 관점에서 여성 아카이브의 구축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페미니즘 아카이브의 실용주의적 구축 방법론에

1) ‘국립여성사전시관’은 장소의 협소성을 타개하고 종합박물관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는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다시 그 논의가 2026년으로 미뤄진 실정이다. 박물관 기증물을 수집 중인 전시관 측은 2026년 개관을 목표로 밝히고 있지만, 기존 건물부터 열겠다는 공사 계획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다. 박물관 개관과 관련한 여성가족부의 용역 과제(2014)에서는 여성사박물관 운영전략으로 전체 9개 관 중 하나를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한국 사회의 변화상을 담기 위해, 탈북 여성, 결혼이주여성, 이주여성 노동자의 삶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배정해 두고 있다(정현주,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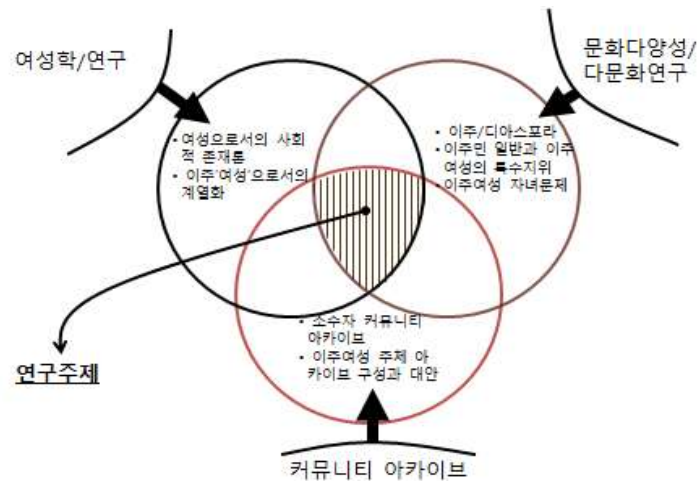
집중하는 것에 견주어, 아카이브에서 여성의 주체성을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본질적이고 비판적인 논의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앞서 논의된 선행연구를 정리하자면, 이들 대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해 이주공동체 (또는 다문화) 아카이브의 필요성을 크게 수긍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이주공동체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실무적 방법론을 제안한다. 이들은 대체로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기록의 생산현황 및 유형 분석, 전략적 수집방안, 최종적으로는 통합적 관리 및 서비스를 위한 실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선행연구가 이주공동체 아카이브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들 접근은 나름의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방법론에서 기존의 공적 기록관리 관행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질적 측면의 제고가 아쉽다. 이를테면, 영미권은 ‘아카이브 전환(archival turn)’ 국면과 맞물리면서 여성사 아카이브와 관련해 여성(사)아카이브, 페미니즘 아카이브 등이 제기됐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전통적 기록관리 관행에 대한 비판적이고 패러다임 전환의 성찰을 촉구하면서 새로운 여성성의 아카이브 대안을 모색해 나가려는 지적·실천적 토대가 자리 잡았다. 그에 반해 국내 논의들은 여전히 그 이론적 지형에 있어서 협소함을 보인다. 즉 여성 아카이브의 철학과 내용, 그리고 방향에 대한 보다 비판적이고 본질적인 논의까지 이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다시 말해, 이제까지 국내 논의는 공적 아카이브에서 타자화된 여성성에 대한 비판이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언급되고 있으며, 여성의 주체성을 어떻게 아카이브 체제 안에서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 글은 이렇듯 기존 선행연구에서 보이는 기록 철학적·이론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주여성 아카이빙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 대안적 길 찾기를 시도한다.

1.3 연구의 방법과 범위

앞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대체로 여성 집단 기억의 기록화에 대한 철학적, 이론적 접근이 빠져있거나 이주여성 문제 자체를 구체적으로 다루거나 공론화하는 시도 자체가 드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주여성의 기록 철학적, 이론적 접근을 새롭게 모색하고, 이에 따른 기록화 방향이 어떠해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이주여성 아카이브를 기존의 ‘이주여성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이주여성 자신의 기록’으로 바꾸기 위한 기록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한다. 즉 이주여성을 기록화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 주체로 재위치시키는 관점 전환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주류 아카이브나 관련 기관들에 의한 일방적인 ‘위로부터의’ 아카이브 구축이 아닌, 아키비스트와의 평등한 대화와 소통 과정에서 그들이 주체적으로 주도하는 ‘아래로부터의’ 이주여성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이주여성의 삶과 기억을 기록화하는 아카이빙의 다문화주의적 접근법을 취한다.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이주여성, 이주민으로서의 이주여성, 여성으로서의 이주여성 등의 다층적 존재론적 지위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록화의 이론적 프레임을 고민한다.

이주여성 아카이브의 이론적 틀을 세우기 위한 구체적 연구 방법으로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처럼 이주여성 아카이브의 접근 주제에 접해 있는 다학제적 영역들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차용할 수 있는 주요 개념과 이론 자원을 통합해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여성학 연구와 관련해서는, 그 학문적 자원인 이주여성의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존재와 ‘여성’의 지위가 갖는 타자적 함의에 주목한다. 사회학의 다문화 연구와 관련해서는, ‘이주’의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비롯해 이주민 일반에 대한 접근법의 재규정과 그 속에서 이주여성의 특수 지위가 갖는 함의에 주목한다. 아카이브 연구 영역과 관련해서는, 소수 공동체를 위한 아카이브의 전통적인 구성 방식에 대한 논의를 가져와 이를 이주여성 아카이브 구성에 접목하고자 한다.



<그림 1> 이주여성 아카이브 다학제간 접근방법론

양적 방법론에 입각해, 먼저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적어도 신뢰성과 진실성을 인정받는 공적 아카이브에서 실제 이주여성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그 양상을 분석한다. 실제 국가기록원을 그 대상으로 해 이주여성 관련 기록의 생산 및 관리 현황을 살핀다.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중 이주여성 공동체의 재현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국가기록 포털에서 ‘이주여성’을 키워드로 해서 통합검색을 했고, 이로부터 취합된 이주여성 관련 기록물 내용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질적 방법론에 입각해,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국가기록원의 공적 아카이브 현황과 문제점을 기반으로 이주여성의 경험을 기록하기 위한 개념적, 이론적 프레임의 제언한다. 기존 미디어나 이주 정책의 포용론이나 동정론적 시각을 벗어나, 이주여성의 동시대적 삶과 기억을 기록화하여 공유하는 적극적 공존의 상생적 기록화를 위한 이론적 프레임의 제언한다. 지금껏 국내 이주민 및 여성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들은 주로 실무적인 구축 방법론에 치중한 나머지, 추상화된 개념이나 이론적 틀과 수렴해 나가는 연구성과들은 내놓지 못했다.²⁾ 그런 연유로 본 연구에서는 실무적인 아카이브 구축 방법론이나 이주여성 아카이브의 구체적 유형을 살피는 대신, 이주여성 아카이브 구성의 원칙과 그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일련의 철학적 개념과 이론적 관점을 강조한다.

2. 이주여성의 삶·기억

2.1 이주의 여성화

단일민족의 동질성과 민족국가의 발전에 대한 신념이 여전히 지배적인 한국 사회에서, 서서히 다문화사회나 ‘다문화주의’ 담론이 확산하고 있다. 다문화 담론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집단은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

2) 필자가 강조컨대, 이 글에서 이론적 프레임에 집중하는 것은 실무적 차원의 구체적 방법론이 가지는 중요성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오히려 기록화 과정 전반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개념적·이론적 프레임에 대한 성찰이 실무적 방법론에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그래야만 사회적 소수자로서 이주여성의 대상화를 극복하고 그들이 보다 평등주의적 방식으로 아카이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주여성에 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해야 한다면, 방법론에 앞서 이주여성이 겪는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가 서로 맞물려 진행되는 ‘젠더화된 인종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기록학적 원칙과 가치를 반영하는 이론적 프레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아카이브의 이론적 프레임의 한계, 즉 백인 중심주의, 남성중심주의, 가부장주의 등 지배적 편견이 쉽게 투입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아키비스트 자신이 이주여성 기록화의 원칙을 제대로 지켜내기 어렵다.

족이다. 가족 단위의 이주와 노동 이민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한국 사회에서 결혼을 통해 이주한 아시아 여성들은 한국 사회 최초의 합법적 정주형 이민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정 기간 머무르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잠정적 체류자나 초청 노동자(guest worker)가 아닌, 한국인의 배우자나 한국인의 부모가 되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존재는 국민과 민족의 경계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새로운 변화로 받아들여진다(황정미, 2009, 2-3).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 사회에 급속하게 증가한 결혼이주 현상은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라는 전 지구적 맥락 안에 자리하고 있다. ‘이주의 여성화’ 개념은 양적인 측면에서 노동인구 중 다수가 여성 이주자에 의해 구성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질적인 측면에서 여성이 남편을 따라 이주하는 ‘동반 이주자’가 아니라 스스로 주체적인 노동자의 신분으로 이주하는 취업이주자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이혜경 외, 2006, 25). 사회학적 논의 틀에서 보자면, 이주의 여성화는 근본적으로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양극화 현상과 ‘빈곤의 여성화’, 그리고 북반구 국가들의 복지와 돌봄 체계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효과로 설명된다.

아시아 지역은 이주민 중 여성의 비율이 65%~75%로 나타나 이주의 여성화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지역이다. 아시아권에서 이주의 여성화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인구통계학적 변화에서 기인한 국제결혼의 급속한 증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에서 이주여성을 요구하는 노동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리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 재생산 위기로 결혼 이주가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장려됨에 따라 이주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주로 제조업, 건설업 등의 노동자로 이주하는 인구가 남성인 반면, 여성들은 모국(유출국)과 국내(유입국)의 가부장적 사회체제의 특성으로 인해 가사노동이나 각종 서비스업 등 전형적으로 여성의 일이라고 여겨지는 사적 돌봄과 감정 소모가 요구되는 노동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국내 이주여성에 대한 초기 연구는 다문화 담론 속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주된 대상이 됐다. 이주 남성을 외국인 노동자의 대표자로 보는 한편, 이주여성은 결혼이주자로 한정해 바라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단순화된 인식 구조 속에서 이주여성은 남편이나 아버지 등 가부장적 체제에 부속된 존재로서 다문화가족의 범주에서만 이해되었고, 이주여성을 당사자의 필요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정부 정책의 무기력한 수혜자로 대상화하였다. 주로 ‘동화주의’에 기반한 수용국 중심의 가부장적 실리주의 관점에 기반하면서, 가령, 국제결혼이 수용국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가늠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최근에는 이주여성과 그들이 하는 일과 노동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통념을 지적하면서 이주여성에 대한 관점의 확장을 요구하는 추세다. 사회적 성역할로서 ‘젠더’가 노동력의 국제이주에 있어 중요한 동기라는 것에 주목하면서, 기존의 이주여성 연구에서 빠진 분석을 메우고 있다. 이를테면, 국내에 유입되는 이주여성이 보통 결혼이주여성만이 아니고 경제적인 이유로 돈벌이를 위해 유입되는 이주여성 노동자를 포함해서 다양하고 이질적인 이주여성 집단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논의가 점차 커지고 있다. 또한, 정부의 다문화정책 속에서 정책 집행의 대상이자 행정 편의적, 업무 중심으로 이주여성을 접근하면서 이들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논의 또한 제기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주여성에 대해 이전보다 질적인 접근, 즉 심층 면접이나 문화기술지 분석을 통해 이주여성의 미시적 생애사를 그들의 입장과 방식으로 경청하고자 하는 노력도 수반되고 있다(이용균, 2007; 이해웅, 2005). 즉 당사자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주여성의 ‘주류화’와 ‘역량 강화’에 연구의 방점을 두는 추세다.

이렇듯 이주여성 관련 관점과 연구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주여성에 대한 연구가 사회적으로 그 논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로 그 원천 정보를 공적 아카이브로부터 대부분 가져오거나 활용한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현재 공적 아카이브에 보관된 이주여성의 기록은 어떻게 생산, 관리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현행 공적 아카이브를 통한 이주여성의 재현방식이 그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2 이주여성의 아카이브 재현: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 속 이주여성의 재현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영역은 단연 미디어 분야이다. 대중매체 속 재현은 대체로 이주여성을 동화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온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그리고 있다. 미디어 속 결혼이주 여성의 경우, 한국 여성보다 더 ‘한국적인’ 부인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부각한다거나, 다양한 문화적 환경을 짚어내기보다는 동남아의 가난한 나라에서 시집온 여성으로 바라보면서 정서적 온정주의의 대상으로 이미지를 고착화한다(이소현, 2014). 또한 남편의 폭력이나 사회적 차별을 당하는 취약계층이자 자신을 향한 차별적인 언행에 저항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취약한 존재로 그리는 것이 일반적인 미디어 재현방식이다.

‘대상을 다시 있게 한다’라는 뜻의 ‘재현(re-presentation)’은 미디어 분야뿐만 아니라 기록학계에서도 논쟁적 주제이다. ‘활동의 지속적 재현물’인 기록물은 그 속성으로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어떠한 매체보다도 재현 태도나 방식에 있어 진실성과 공공성을 지니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실증주의와 경험주의에 기반하여 개인이나 조직이 ‘업무 설명책임성’과 ‘증거’로서의 기능을 위해 기록을 보존·관리해 왔기에, 공적 기록은 재현될 사건과 대상에 대한 가장 공신력 있는 증거 매체로 여겨져 왔다. 미디어가 특정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콘텐츠를 제작해 시청자에게 재현하면서 신뢰성 등 공신력을 획득하기 어려운 데 비해, 공적 기록은 학술 연구와 미디어 및 언론 보도에 인용될 정도로 객관적인 출처로 인정받아 왔다.

그렇다면, 이렇듯 공적 기록을 관장하는 국가기록원의 이주여성 공동체에 대한 재현 양상이 어떠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국가기록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세대에 전승할 가장 공신력 있는 기록을 영구 보존하는 책무를 사회적으로 부여받은 기관이다. 국가기록원이 기록을 통해 재현하는 이주여성은 동시대인들의 이주여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주여성에 대한 ‘공통감각(sensus communis)’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국가기록 포털을 활용해 ‘이주여성’을 키워드로 해서 통합검색을 한 결과, 총 329건의 기록이 선별됐다. 구체적으로, 일반문서류 316건, 녹음·영상류 1건, 정부간행물 12건이 취합됐다. 생산 연도는 2001년~2010년에 36건, 2011년~2020년에 291건, 그리고 2021년~2030년에 2건으로, 이주여성에 대한 대부분의 기록이 2011년~2020년 시기에 집중돼 생산되었다. 통상적으로, 30년 이상의 보존 가치를 가지는 기록물이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는 프로세스를 고려했을 때, 2000년대 중반부터 다문화정책의 이름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주민 통합정책을 도입·시행하면서 정책집행의 부산물로 이주여성 기록이 이 시기에 집중돼 생산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생산기관은, 경찰청이 28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19건,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가권위위원회 17건, 여성가족부 5건, 법무부 4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건 순이었다. 이 외에도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헌법재판소, 한국법제연구원, 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 등이 관련 기록을 생산했다. 가장 많은 기록을 생산한 경찰청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가 생산한 ‘이주여성 범죄피해 예방 및 지원대책’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생산한 ‘이주여성 (한국어) 교재’ 관련 기록이 차지했다.

국가기록원의 이주여성 관련 기록에 대한 검색 결과에 기반해서 이주여성의 재현 양상을 분석해 보면서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이주여성이 ‘결혼이주여성’이라는 단일한 표상으로 대표되어 재현되는 특징을 보인다. 전체 329건의 기록 가운데, 180건이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기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 ‘이주여성’ 81건, ‘동남아 결혼이주여성’ 40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7건,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 3건, ‘몽골

결혼이주여성' 1건 순이다. 이주여성 담론 안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집단이 결혼이주여성임이 확인됐고, 이것은 공적 기록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공적 기록의 재현에서 이주여성이 대체로 인권 침해, 범죄, 가정폭력에 노출된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앞서 검색 통계를 통해 언급했듯이, 이주여성에 대한 기록을 가장 많이 생산한 기관은 경찰청으로, 전체 기록의 85%가 경찰청 기록이었다. 경찰청 기록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 및 지원대책'으로 총 128건이다. 다음으로 '남편 가정폭력' '인권 보호 및 폭력피해' '학교폭력'을 위한 예방 교육 '가정폭력 우려자 보고' '폭력 범죄 피해근절 대책', '결혼이주여성 보호를 위한 외국인 도움센터'에 관한 기록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가권익위원회의 경우에도 비슷한데,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 '이주여성 입국 불허에 의한 인권 침해' '이주여성인권센터 위법행위'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 방안 마련 추진 계획 보고'의 기록물을 생산했다. 여성가족부의 '여성 폭력피해자 지원시설평가' '이주여성 가정폭력 실태 및 보호시설 운영 개선연구'의 기록이나, 한국법제연구원의 '결혼이주여성 인권 보호 및 피해자 예방을 위한 결혼중개업법 제도개선연구'에 대한 기록물 생산 또한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경찰청 기록을 비롯해 국가인권위, 국가권익위원회, 여성가족부, 그리고 한국법제연구원이 생산한 기록의 중심 주제는, 이주여성을 범죄(피해), 가정폭력, 학교폭력, 위법, 인신매매, 인권 침해에 취약한 집단으로 대상화하고 있다. 이주여성으로 마땅하지도 다문화 자녀의 경우에도 학교폭력을 당하고 사회적 차별의 대상으로 반복해 재현되고 있다. 또한 '지원', '보호', '보호시설' 등의 단어가 선택적으로 쓰이면서, 이주여성이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이미지를 고착화 한다.

셋째, 이주여성 관련 기록물이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수용국 중심의 시각에서 재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경찰청 다음으로 이주여성에 대한 많은 기록을 생산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생산한 19건의 기록 전부는 이주여성의 한국어 향상을 위한 한글 교육교재에 관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주여성의 언어 및 문화 적응실태' '한국어 교육 국고보조사업' '이주여성 (한국어 교육) 교재' '이주여성 교재 번역' '이주여성 한국어 교재 저작권 문제'에 관한 기록이다. 다른 한편으로, '입국초기 이주여성 가정방문'에 관한 기록이 14건이 생산되었다. 이들 기록물을 통해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유입 초기에 주로 한국어교육과 사회 적응 관련 프로그램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사회 동화와 적응을 지원하는 통합 목적의 다문화정책들이 대체로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령, 이주여성은 언어와 문화가 달라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제한된 서사가 강조되고, 동시에 이들은 동화가 요구되는 '부족하고 결핍된' 어머니로 묘사된다. 다문화가정을 안정적인 주류로 안착시키기 위해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이주여성 모국의 언어와 문화를 포기하고 주류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논의가 비일비재하다.

종합해 보면, 국가기록원에서 보이는 이주여성의 이와 같은 기록적 재현은, 실상 생산자 출처와 기능 출처를 적용한 채 관련 정부 부처(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와 기능(외사일반, 외국인범죄예방, 사회복지 등)의 관점에서 기록물을 생산하면서 이주여성의 실제적인 정체성에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자 효과라 볼 수 있다. 현재 유지되는 공공 기록관리 체계는 공적 기록을 그 중심에 두고 발전해 왔다. 업무의 필요성에 의해 생산·이관된 기록을 조직의 관점과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정리·기술하고, 증거적·정보적 가치를 식별하여 선별 및 이용하기 위해 발전시킨 모델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리 체계는 이주여성을 재현하기에는 다소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주여성이 다문화정책이라는 업무가 집행되는 대상자로서 정책적 지원의 대상이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대상으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2.3 공적 아카이브에서 이주여성 재현 문제 및 한계

앞 절의 국가기록원 기록물의 재현 특징들이 과연 어떤 문제와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 보자. 먼저, 공적 기록에서 이주여성이 ‘결혼이주여성’으로 단순 대표되는 것은 기록 재현에 있어서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사실상 국내에서 이주여성의 경험은 결혼을 통해 정착하는 경우 외에도 다양하다. 대체로 이주여성은 직업별 혹은 형태별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볼 수 있다. 즉 국제결혼이주여성, 일반노동 이주여성, 가사노동 이주여성, 성노동 이주여성이 그것이다(송형주, 2014). 이주여성의 집단이 이렇듯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록원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기록이 전체 기록의 절반 이상(55%)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결혼이주여성에 정부 정책이 편중되어 있고 다른 어떠한 이주여성 집단보다 결혼이주여성이 선별된 정책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주여성을 결혼이주여성으로 단일하게 재현하면서 이주여성의 이미지를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한국 남성과의 결혼 때문에 이주해 온 여성으로 지나치게 단편화하고, 이주여성의 이주 동기나 이동의 단면성을 강조하여 우리 사회에 왜곡된 인식을 심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이주여성 내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등에서 더 세분화된 언어, 집단, 민족 등의 다양한 ‘에스닉(ethnic)’ 공동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4), 이를 근거로 이주여성을 기록하고 있는 비중은 극히 낮다. 달리 말해, 이주여성의 경험을 제대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에스닉 공동체의 문화적 차이를 드러내고 그들의 다층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여성이라는 개념에 속하는 여성들은 적어도 17개국에서 온 여성들로 구성된다. 더군다나 다양한 역사와 사회적 배경을 가진 이들 여성은, 이주여성, 또는 결혼이주여성이라는 한 단어로 묶어서 표현하는 것이 과도한 일반화의 폭력일 정도로 다양한 역사적 맥락이나 에스닉 정체성의 서로 다른 결을 갖고 있다. 어찌면 이는 의도하건 아니건 한국 사회의 가족제도를 존속하기 위해 이주여성을 동화적인 존재로 보고 이를 동질화하는 주류 사회의 폭력적 시선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이주여성을 사회와 가정 등 가부장적 폭력에 취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타자화된 대상이나 집단으로 그리 는 기록편향의 문제다. 공적 기록들에서 이주여성 관련 기관들이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그들의 불행에 집중하고, 무의식적으로 이주여성에 대한 ‘피해 중심적’ 표현을 영속화하고 강화하는 경향이 커 보인다. 공적 기록 대부분이 정책 입안자를 대상으로 이주여성의 고통과 피해에 초점을 맞춰 공공 서비스 기관에 변화를 제안하는 것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이러한 재현 방식이 이주여성 공동체가 직면한 가부장적 사회의 “억압을 바로잡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으로 채택된다(Rokay, 2021, 186). 이주여성이 이주 당사국에서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상당히 불안한 존재 혹은 희생자로 기록되는 반면, 이주 자체가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주여성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정책집행의 대상으로, 그 내용은 불쌍하고 힘이 없어 보호해야 하는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그려진다. 동정과 시혜는 이주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의 표현일 수 있지만, 그들을 우리와 같은 동등한 주체적인 인간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와 다른 대상화된 존재로 타자화하는 것에 그친다.

이주여성에 대한 최근 연구 경향이 이주를 통해 그들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주를 새로운 독립과 기회로 활용하는 여성의 위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취업 허가를 받아 제조업과 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네팔의 젊은 여성 13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는, 이주여성이 지닐 수 있는 또 다른 역능적 정체성을 강조한다. 이주를 통해 여성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에 자신감을 얻고 자신의 경제적 미래를 계획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중요한 가족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주여성의 역량 강화와 자존감의 상호 긍정적인 면모를 밝힌다(Shakya & Yang, 2019). 이들 연구는 이주여성 공동체를 온전하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생애 고통을 드러내는 것 이상으로 이주여성 공동체에 널리 퍼져있는 지혜와 희망 서사, 그리고 역량 강화 등을 발굴해 재현하는 것이 사회 정체성

형성에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

마지막으로,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강조는, 단적으로 이주민을 우리 언어권 문화에 일방적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우리식 사회통합은 이주민들을 유입국의 주류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거나 동화시킴으로써 사회적 불안이나 소외 등 사회적 갈등 상황을 줄여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기록물을 통해 본 한국의 다문화 교육은 서구 사회와 달리 교육의 대상도 소수 다문화가정의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식 문화와 전통을 주입하는 동화주의적 한계를 여전히 보였다. 정주민과 이주민과의 사회통합을 목표로 오로지 한국어만을 강조하는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이주민의 모국어를 다문화가족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진정한 다문화 교육에 대한 기록은 실상 찾기 힘들었다.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살펴본 국가기록원의 이주여성에 대한 기록물의 재현 양상은 이주여성의 단순화, 타자화, 동화주의로 귀결된다. 단순화는 이주여성의 범주를 ‘결혼이주여성’으로 축소하는 오류를, 타자화는 이주여성을 시혜나 동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동화주의는 문화적 가부장주의를 상대에게 강제하는 것을 뜻한다. 이 세 가지 특징이 국가기록원의 공적 기록을 지배하는 지배적 서사라는 점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으나 다문화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적용하지 못하는 아이러니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국민국가와 단일민족이라는 허구적인 틀 안에서 이주여성을 ‘우리와는 다른 존재’라 경계 짓는 주류 미디어의 재현 방식과 마찬가지로, 공적 기록 역시 사회적 편견을 부지불식간에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의 이주여성 기록은 눈에 띄는 기록화의 공백을 메우거나 노골적인 동화주의를 바로잡기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사회와 학계 논의의 반영 결과라기보다는, 관성화된 정부 정책의 부산물로 읽힐 수 있다. 이는 TNA가 이주공동체를 영국 사회의 일부분으로 수용하고, 기록관리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획 수집을 통해 ‘무빙 히어’라는 이주민 공동체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적극적인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우리 국가기록원의 경우에 이주여성에 대한 기록이 정부 부처로부터 이관받은 정책보고서 등 행정기록뿐이라는 점도 문제적이다. 그 내용에서도, 이주여성 공동체 내 개별 에스닉 공동체가 지닌 인종·문화적 변수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적 돌봄이 필요한 빈곤하고 위태로운 공동체로만 집단화함으로써 이주여성의 다양한 삶의 차이와 결이 잘 묘사되거나 드러나지 않는다. 문제는 이처럼 공적 아카이브에서 타자의 시선으로 대상화한 이주여성의 모습은 사회적으로 마치 ‘공정한’ 출처로 다뤄지고 연구나 언론 보도 등에서 쉽게 재생산된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연구와 미디어 부문에서 재현되는 이주여성의 이미지 또한 공적 기록을 통해 재현되는 양상과 상당히 흡사한 형태로 상호 복제될 수밖에 없다.

이주여성의 존재가 정책 담당자라는 대리자에 의해 기록되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공동체 내부의 차이도 묻힌 채 제대로 재현되지 못한다면, 기록화에 있어 목적이 무엇이며 무엇을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개념과 이론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이경희, 김익한, 2021). 그래서, 이주여성을 제대로 재현하려면 그들을 중심에 두고 기록의 출처에 접근하는 시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산자나 업무기능이 출처가 아닌, 재현 대상인 이주여성을 출처로 해서 그 질서를 재조직하는 새로운 이론적 프레임이 필요한 것이다(류한조, 이희숙, 2010). 이는 이주여성의 각자 개별적 차이를 보편성으로 환원시키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존재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담아내려는 방식으로의 삶·기억의 기록학적 재현이어야 한다.

3. 이주여성의 삶·기억 아카이브의 이론적 프레임

3.1 출처주의의 확장

전통적으로 출처주의는 기록학의 “역사적, 학문적 출발점”(Eastwood, 1994; Lapp, 2023)으로 간주되어 왔다. 18세기 후반부터 기록관리의 원칙으로 활용되어 온 출처주의는 아키비스트가 실무에서 기록의 기원과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계속해서 소환하는 주요 개념적 자원이다. 기록이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기록의 생산자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심축을 담당해 왔다. 출처주의는 한마디로 기록생산자를 중심으로 기록의 기원과 질서를 안정화하려는 욕구를 반영하는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풍 존중’과 ‘원 질서’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출처주의는, 다른 생산자의 기록과 섞임 없이 동일한 생산자의 기록은 언제나 함께 유지하고 (풍 존중의 원칙), 생산자가 만든 원래 질서로 기록을 유지하는 것(원 질서 존중)이 기본 골격을 이룬다.

출처주의는 원래 기록을 작성한 개인, 가족, 조직 등 기록생산자가 하나인 단일 출처를 의미한다. 하지만, Nesmith(2006)는 출처를 오히려 기록생산자의 행위를 형성하는 ‘사회적, 지적 맥락’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면서, 이른바 ‘사회적 출처주의(social provenance)’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이러한 집단적 다중 출처의 개념은 Bastian에 의해 보다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었다. Bastian(2006)은 식민지 기록의 경우 출처를 식민지 피지배 주민의 목소리를 포함하는 더 넓은 맥락으로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식민지 체제의 경우, 출처를 기록생산자(일반적으로 식민지 개척자)로 제한하면 지배 집단에 유리한 왜곡된 역사를 기술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신, 전통적으로 단일 출처로 간주되어 오던 기록생산자 외에, 기록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당사자, 즉 피해 당사자나 피억압 계층을 포괄하는 범주, 즉 ‘기록의 공동체(community of records)’를 출처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기록의 맥락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다층적 기술이 가능해져 “기록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제공할 수”(Bastian, 2006, 283) 있다는 것이다. 두 학자의 논의는 기록생산자를, 기록을 작성한 저작권자로 한정하는 협소한 범주에서 벗어나 기록 주체(subject of records)를 포함하는 광의의 범주로 넓히고, 더 나아가 기록생산자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까지도 출처로 포괄하는 복합·다중적 출처로의 전환을 촉구했다고 볼 수 있다. 두 저자 모두 기록이 단일한 생산자와 단일한 생산 맥락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전통적 출처주의의 본질적인 오류를 지적하는 동시에, 기록 주체와 더불어 그를 둘러싼 문화적·사회적 맥락으로 출처의 범위를 확장해야 함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 외에도 정적이고 경직된 원 질서 원칙에서 벗어나 기록의 질서가 항상 유동적이라는 논의(MacNeil, 2008)를 비롯해서, 출처주의와 권력의 상관성을 논의하면서 지금껏 출처주의가 기록의 중립성을 담보하기보다는 권력 지향적임을 지적하는 연구(Drake, 2016; Lapp, 2023; Wood et al., 2014; Yeo, 2009)를 통해, 출처주의는 전통적인 단일 출처주의적 해석 오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논의로 확장하고 있다.

출처주의에 대한 최근 논의는 그 자장을 좀 더 넓히고 있다. 예컨대, 2024년 『Archival Science』 특집호는 출처가 다양한 장소이자 형태로 재해석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출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사회적 태도와 관심사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했다. 특집호에서는 출처주의를 재정의하는 대표적인 기록학 이론이나 현상, 예를 들면 사회적 출처주의를 비롯해 기록연속체론과 디지털(분산)환경 등을 다루는 동시에, 젠더 이슈, 원주민 주권, 소외된 공동체 기록에 있어서 출처주의가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지를 탐색한다. 이들 일련의 연구를 통해 점점 더 출처는 고정되고 단일한 실체라기보다는, 다양한 행위자, 권력, 관계성, 사회적 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기록의 동적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 즉 출처는 기원성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며, 여전히 사회와의 중층적 관계 속에서 비판적 사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이렇듯 확장된 출처주의 논의의 유효성을 인정한다면, 이주여성 아카이브 구축에 대입해 어떤 새로운 이론적 프레임이 짚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어갈 수 있다. 이어지는 다음 절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주여성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서 전통적 출처주의가 가지는 모순과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처 개념의 재구성을 시도한다. 이는 동시대 다문화사회 속 공생의 적극적 기제로서 아카이브의 주된 역할을 위해 출처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구성되고 확장되어야 할지를 짚는 개념적·이론적 논의의 심화라 할 수 있다.

3.2 출처로서 에스니시티

1990년대 후반, 포스트 근대주의와 ‘아카이브 전환’으로 본격화된 기록학계의 이론적 논쟁은 아카이브 내 사회적 약자의 비가시화에 대한 대안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아카이브의 사명과 본질에 대한 성찰을 크게 불러왔다. 특히 서구 기록학계에서는 탈식민주의와 디아스포라 연구, 그리고 소수 인종에 대한 관심이 증폭하면서, 기존 주류 문화기관에서 보존하는 이민자와 에스닉(ethnic)³⁾ 공동체 아카이브의 비판적 재구성을 촉발했다.

Bastian(2014)은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전통적인 출처 개념이 기록관리적 측면에서 피지배계층인 카리브 공동체의 문화적 기억상실을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그는 ‘기억 프레임(frame for memory)’을 출처로 인정하는 것이 그동안 가시화되지 않던 카리브 ‘에스닉’ 공동체를 복원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한다. 그의 ‘기억 프레임’은 기록 주체가 기억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문화적 맥락을 뜻하는 것으로, 문화적 차이와 특성을 속성으로 하는 ‘에스니시티’를 에스닉 공동체 기록의 출처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Wurl(2005)은 보다 직접적으로 ‘출처로서 에스니시티(ethnicity as provenance)’를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에스니시티가 에스닉 공동체 아카이브의 주제나 테마 정도로만 간주되어 온 기록관행을 비판한다. 그는 에스니시티를 ‘공통의 기억, 경험, 문화적 레퍼토리에 기반을 둔 집단의식’으로 정의하면서, 미국의 다양한 이민자를 포함한 에스닉 공동체 아카이브를 위한 이론적 프레임으로 ‘출처로서 에스니시티’를 제안한다. 그는 에스니시티를 기록관리기관이 에스닉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을 더는 외면하거나 단순화하는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주요 기제로 취급한다.

Daniel(2014)은 북미 주류 아카이브에서 에스닉 공동체에 대한 기록을 ‘아카이브의 에스닉화(ethnicization of archives)’에서 ‘에스니시티의 아카이브화(archivization of ethnicity)’로 전환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 말인즉슨 초창기 주류문화기관이 에스닉 공동체에 대한 기록관행에 있어서 인종적 편견, 정부 정책, 관료적 통제를 중심에 두었다면, 이제는 인권운동과 다문화주의라는 사회적 환경 변화 속에서 에스닉 공동체 아카이브의 서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중심에 두고 이주민 스스로 이주 적응과정과 다문화 정체성을 기록하는 체계로 전환하자는 데 있다. 다니엘이 제기한 ‘에스니시티의 아카이브화’는 Cook이 근대 아카이브 이론의 중요한 패러다임 중 하나로 지적한 ‘공동체 패러다임’과 상당히 일치한다. Cook(2013)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는 마지막 네 번째 ‘공동체 패러다임’ 단계에 있으며, 이 패러다임 시기에는 참여형 아카이브를 중심에 두고 정체성 기반 아카이브와 공동체의 참여를 강화하는 기록 실천이 중요해진다.

‘에스니시티의 아카이브화’는 TNA의 실제 구축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무빙 히어(Moving Here)’는 TNA를 포함해 기록물관리기관과 박물관, 대학교, 도서관, 학회 등 28개의 다양한 문화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민사 관련 기록을 수집하는 한편, 지난 200년 동안 영국으로 이주한 4개 그룹, 즉 동유럽 출신 유대인, 아일랜드 출신, 카리브, 남부 아시아 출신의 공동체들이 제출한 1,000개 이상의 기록물을 수집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홈페이지

3) 본 연구에서는 ethnic 혹은 ethnicity를 으레 ‘민족의’ ‘민족성’으로 옮기는 대신에 그대로 ‘에스닉’ ‘에스니시티’ 개념의 영어 차음 그대로 적는다. 이는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타자의 등장이 본격화되면서 기존의 ‘민족’과 ‘인종’이란 번역어로는 이들 개념의 성격과 변화를 담기에 제한적이라 본 까닭이다. ‘에스니시티’ 개념을 그대로 쓸 때 얻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인종종족민족이 함의하는 우생학적 우열과 차별을 배제하고 ‘민족(성)’이 가지는 차별주의적 정치 색채를 극복하는 다의적 용어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데 있을 것이다(박종일, 2006, 284-285).

지의 또 다른 섹션인 ‘이민사(Migration Histories)’는 이들 4개 이주공동체 각각의 이민 역사를 좀 더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다. 각 이민 집단마다 ‘기원과 이주 이유’, ‘이동 경로와 경험’, ‘영국 도착 및 정착 과정에서의 경험’, ‘정착 이후 성장 과정’, ‘자녀교육 및 일자리 경험’, ‘문화와 축제’, ‘정치적 측면’ 등 자신들의 에스닉한 전통과 문화유산을 그들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최재희, 2013). ‘무빙 히어’ 컬렉션은 이주공동체의 문화적 맥락인 에스니시티를 중요한 기록의 출처로 간주함으로써 영국 내 다양한 에스닉 공동체가 직접 자신의 이주 역사를 기록하고 자신의 목소리로 말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결국, ‘에스니시티의 아카이브화’는 ‘출처로서 에스니시티’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에스니시티’는 단순히 모국(母國)의 생물학적 또는 문화적 특성이 이주 정착할 사회에 유입되는 대상이 아니라, 수용 사회와 다양하고 도전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복잡한 적응과정을 겪는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개념으로 봐야 할 것이다. 혈통이나 다른 본질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절대적으로 예정된 정적이고 경직된 개념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산물이자 다문화사회를 입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다문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에스니시티는 이질적 주체의 이주 과정과 단순한 문화적 적응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라 이후 지속적인 정착 과정에 주목하게 하고 상호 이질적인 문화의 섞임에 의해 개방적 공동체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유용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김기홍, 2012, 447-448). 언어, 종교, 지역, 국적은 물론이고, 이렇듯 모국과 유입국의 다양한 얽힘의 연결망에도 관심을 갖는 에스니시티를 출처로 고려하는 것은, 이주여성의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입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인간은 실제로 공통 언어, 지리적 기원, 문화적 표현 방식, 종교, 요리 등 ‘에스닉’한 생활양식을 중심으로 통합된 사회 시스템, 다시 말해서 집단으로서의 행동 방식을 발전시킨다. 아카이브에서 이주여성 및 그 후손들의 경험을 온전히 재현하려고 할 때, 우리는 에스니시티가 대인 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주여성 자신의 정체성 기반을 제공한다는 근본적인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 틀은 결국 에스니시티가 출처로 구체화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무엇보다 출처는 기록의 “맥락을 중심으로 구축된 조직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Bastian, 2003, 10). 이주여성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에스니시티의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주여성의 사회적 정체성을 기록하려는 노력은 단편적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이전처럼 에스니시티를 출처로 보지 않고 교육, 노동, 스포츠, 예술 등과 같은 주제 영역 또는 테마 정도로 간주한다면, 에스닉 공동체 문화 인프라의 깊은 곳에서 비롯된 풍부한 맥락들을 간과하게 에스닉 공동체의 정체성과 경험에 대한 왜곡된 재현을 불러올 위험이 상당히 크다.

에스니시티를 출처로 보는 것은 기록관리 실무에서도 변화를 불러온다. 문서의 물리적 집합체에 얽매어 있는 전통적인 출처의 제약에서 벗어나, 기록관리에서 이제까지 고려하지 않던 에스닉 공동체의 다양한 비문서적 전통의 의사소통 구조를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에스닉 공동체에서 어떤 기록이 어떻게 생산·공유·이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한다. 비서구권의 암묵적 지식 생산 및 전달 체계, 특히 구전 문화의 타당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구술 증언과 비텍스트 증거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록관리에 있어서 서구 유럽의 백인 중심주의와 문서 형식주의를 해체할 수 있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주의, 다문화정책을 공식적으로 표방한 지 열두 25년여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니시티 개념은 기록관리업무에서 여전히 공론화되지 못한 실정이고 유효한 출처로도 간주되지 않는다. 국내 이주여성의 에스닉 공동체는 대체로 모국이 중국(중국과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몽골, 타이(태국),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구성된다. 표면상 우리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동화주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이주여성의 에스닉 특징을 단지 이주여성의 한국화 과정에서 단순 취급하고 있다. 즉 자문화중심의 사회적 통합이 강조되면서, 공통적 가치에 기반한 결속을 강화하느라 사회적으로 에스닉 차이를 외면해 왔다.

이런 연유로 주류 문화유산 기관들이 이주여성의 에스닉 다양성을 고려할 동기를 주지 못했고, 실제 에스니시티는 기록관리기관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최근 이주여성과 이주여성의 자녀들이 일종의 ‘하이픈으로 연결된(hyphenated)’⁴⁾ 새로운 시민 주체로 등장하면서, 국내에서도 이주민과 소수민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나 경험이 커지고 있다. 다양성과 다원주의가 동화주의를 점차 대체해 나가고, 일반화된 이민자 경험에 중점을 두는 주류 관점을 비판하면서 에스닉 공동체의 사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에스닉 특성을 정체성의 일부로 고려하기 시작했다. 다문화주의는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재현할 수 있는 아카이브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는 한다. 이를테면, 에스닉 특성을 이민자와 후손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보는 ‘출처로서 에스니시티’ 접근을 기반으로 해서, 문화적으로 반응하는 아카이빙과 참여형 큐레이션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주여성의 에스닉 공동체 이해에 최적화된 콘텐츠와 컬렉션 구성에 대한 모델링을 마련하는 일과 동시에, 사회 안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록 체제의 대안을 찾는 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출처로서의 에스니시티’가 이주여성 아카이브 구상에서 이주여성을 업무의 설명책임성과 증거를 그 중심에 둔 채 제한된 방식으로 대상화하고 재현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프레임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제까지 동시대 출처주의에 대한 확장된 논의를 기반으로 해 이주여성의 다문화적 맥락을 제공하는 ‘출처로서 에스니시티’를 이주여성 아카이브를 위한 중요한 이론적 프레임으로 도입해야 할 근거를 살폈다. 하지만, 이주여성을 둘러싼 복잡한 맥락은 에스니시티라는 유일한 정체성으로만 존재하지도 않는다. 에스니시티가 이주여성 공동체의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형태라는 접근만으로는 이주여성의 다중적 정체성을 제대로 재현할 수 없다. 에스니시티는 이주여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주여성 주체의 또 다른 맥락적 요소와 지위와 뒤섞여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인종, 젠더, 종교, 언어, 계급 등 이주여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복합적 요인에 주목해야 하고, 이들 요인이 에스니시티와 어떤 상호 작용을 일으키는지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주여성은 다양한 정체성이 종종 겹치고, 교차하고, 심지어 충돌하면서 재현되는 존재인 까닭이다. 그래서, 다음 절에서는 이주여성의 주체 경험을 구성하는 또 다른 중요한 맥락이자 출처인 ‘젠더’를 이론적 프레임으로 설정하는 ‘출처로서 젠더’ 프레임을 펴보고자 한다.

3.3 출처로서 젠더

한국 사회에서 이주여성은 ‘이주민’인 동시에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소수자의 정체성을 가진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다. 국내 기록관리 측면에서도 이주민 아카이브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여성 아카이브의 부재는, 이주여성의 기록이 크게 배제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앞에서 이주여성의 ‘이주민’적 정체성을 제대로 재현하기 위해 ‘출처로서 에스니시티’라는 이론적 프레임의 논의에 집중했다면, 이번 절에서는 이주여성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아카이브에서 새롭게 복원하기 위해 ‘출처로서 젠더’ 프레임에 대한 논의에 집중한다.

1960년대 사회학, 특히 여성학 분야에서 양성 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새로운 방식을 고안하는 과정에서 ‘젠더(gender)’ 개념이 도입되면서 여성 아카이브는 새로운 활력을 찾기 시작했다.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 성으로서 젠더는 사회적 재생산에 가까운 개념으로 젠더 구별을 사회문화적 결과로 이해한다. 그 결과 젠더 개념은 이전의 비역사적인 성별 개념인 ‘여성(woman)’에 더해, 계급, 인종, 에스니시티와 얽힌 복잡한 관계를 고려할 수 있게 했고, 남성주의 권력에 기초해 관계의 본질을 제공하는 문화적·사회적 구성체로서 여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4) ‘하이픈으로 연결된 에스니시티(hyphenated ethnicity)’는 아일랜드계 미국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멕시코계 미국인, 한국계 미국인, 일본계 캐나다인, 앵글로-웨일스계 미국인 등처럼 다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을 지칭할 때 비유적으로 쓰는 표현법이다.

했다.

2000년대 초반에 이르면, 젠더 개념은 탈식민주의적 접근과 함께 역사적 현실의 고정된 실체로서 아카이브를 보는 전통 기록학 담론의 해체를 촉진하는 특별한 원동력이 됐다. 아카이브와 아카이빙 과정의 불평등한 젠더적 본질이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고, 역사가는 기록관의 젠더 편향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역사가가 실제 여성의 역사적 경험을 서술하기 위해서 서사, 구술, 노래, 사진 및 이미지, 여성운동가의 기록, 그리고 가정사 등에 관한 기록을 찾으려 애썼으나, 공식 아카이브에서 이들 기록을 볼 수 없었다. 역사학계로부터의 젠더 부재와 편향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카이브와 역사적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로 이어졌고, 이는 젠더 효과에 영향을 받은 기록학계에서도 아카이브의 경계를 허물고 그 경계 밖 주변에 머무는 여성 주체를 포용하기 위한 기록관리 관행의 젠더 편향성을 재검토하는 쪽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었다.

서구를 중심으로 발전한 근대 기록관리체계는 19세기에서 20세기 전반 식민주의 및 제국주의의 팽창 과정과 맞물려 성장해 왔다. 근대성을 대변하는 실증주의적·경험주의적 성격에 더해 아카이브의 지식 체계는 남성 지배적이고 몰(沒) 젠더적 성격을 내재해 왔다. 기록의 생산·수집 및 관리 주체가 남성에 편중되었고, 선별평가에 있어 ‘보편성’ 혹은 ‘중립성’은 남성성에 의해 대표되었다. 인간과 자연, 이성과 감정, 정신과 육체, 주체와 타자를 둘러싼 이원론적 담론 속에서 이성과 정신을 대변하는 남성(성)에 비해 주로 감정과 육체로 대변되는 여성(성)은 아카이브에서 억압되어 주변화되고 소외됐다. 남성은 공격적이고 노동의 영역에서, 반면 여성은 사적이고 가정과 재생산의 영역에서 주로 조명되었고, 이로 인해 여성의 기록은 시시한 것으로 간주됐다.

공식 아카이브에서 젠더로서 여성(성)은 제대로 가시화되지 못했고, 단지 생물학적 성별로서 여성을 바라보고 재현했다. 실제로 젠더 개념을 가지고 아카이브를 들여다보면 여성에 대한 기록이 매우 부족하고 불완전한 설명으로 가득 차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편적 출처로서 남성의 기록생산 관행에 집중함으로써, 여성이 기록을 생산·공유·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선 ‘비공식적’,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아카이브에서 배제되었다. 기존 아카이브 관행과 여성 기록관행의 불일치는 제도적 아카이브의 실무에서 여성의 가시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면, 개인 문서, 구전 역사, 기억, 가정 등은 여성이 자신의 내밀한 속내를 드러내는 기제이자 주요한 기록형식임에도 불구하고 공식 아카이브는 이들을 기록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또한 여성의 정체성을 제대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정보나 지식뿐만 아니라 주관성, 느낌, 감정 등 여성의 삶·기억에 가장 근본적인 정서를 기록하는 것이 필요한 데도, 이들을 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공식 아카이브에 걸맞지 않은 것으로 배제됐다. 한마디로 “전통적인 여성의 기록생산은 신뢰할 수 없고 허구적이며 ‘권위가 의심스러운 것’으로 낙인찍혔다”(Burton, 2003, 21). 즉 여성이 영위하는 “가정은 문화적 지식과 정치적 욕망을 모두 포함하는 ‘역사의 물질적 기록’이 생산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 사회는 가정을 지식의 장소로 간주하지 않았다”(Burton, 2003, 5).

초창기 여성주의 기록학계의 움직임은, 공식 아카이브에서 만성화된 여성의 부재와 왜곡의 심각성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아카이브를 그 결을 따라서(along the archival grain) 혹은 그 결과 반대로(against the archival grain) 읽으면서 여성의 역사를 발견하거나, ‘숨은 의미와 침묵’을 공식 아카이브에서 찾아내는 방법을 택했다(Chaudhuri et al., 2010; Stoler, 2010). 더불어, 공식 아카이브의 안팎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자료의 통합, 즉 공식 아카이브뿐만 아니라 외부 출처로부터 여성의 삶을 재구성하고 해석하는 다양한 기록(예컨대, 그림과 문양 기록, 선전 및 급진적인 팸플릿, 구전 기록, 개인 문서 등)을 주변으로부터 발굴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Chaudhuri et al., 2010).

근래 들어 기록학 연구는 아카이브와 젠더, 인종, 계급, 섹슈얼리티 등의 다양한 정체성 간의 상호 관계성에 주목하면서 이들 간의 긴장 관계가 재현되는 공간으로서 아카이브를 다루는 추세에 있다. 특히, 아카이브와 젠더의

관계를 다루는 기록한 연구는, 가부장적인 아카이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공유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성주의, 비판적 페미니즘, 참여 아카이브 등 공동체 아카이브에서 강조하는 보편적 원칙들을 제시한다. 하지만 젠더 편향에 보다 특화된 기록학의 원칙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미흡하다. 다만 현재의 출처주의가 공적 아카이브에서 젠더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배적인 가부장적 권력 구조의 이익을 위해 남성중심적 편향에 입각해 왔다는 출처주의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Drake, 2016; Lapp, 2023; Wood et al., 2014; Yeo, 2009)은 젠더편향을 극복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 논의를 위한 출발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전통 출처주의에 대한 비판적 프레임으로서 ‘출처로서 젠더’는 기록생산의 원천적 맥락으로 젠더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전통 출처주의가 기록관리 관행 전반에 남성(성)을 그 기준으로 삼는 데 반해, 출처로서 젠더는 이에 따른 독특한 기록의 생산양식과 관행을 인정하고 기록관리에 있어서 젠더적 정체성의 맥락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것이 핵심에 있다. 즉 ‘출처로서 젠더’는 여성들이 가정에서 생산하는 기록을 “반(反) 기록 또는 역사의 단순한 잔상이 아닌 경험과 정체성에 대한 합법적인 역사적 기록”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한다(Burton, 2003, 10). 또한 구전 역사 같은 기록은 전통적인 서면 기록과 가족 역사 사이의 간극을 메워주는 동시에, “가치, 이상, 문화적 관행을 전달하는 까닭”에 중요한 아카이브 구성 요소로 바라본다(Yakel & Torres, 2007, 108).

궁극적으로, 기록관리에서 젠더 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출처로서의 젠더’ 접근은 아카이브에서 ‘젠더 정의’의 구현을 위한 주요한 개념적 프레임으로 볼 수 있겠다. ‘젠더 정의’는 성 인지 감수성의 관점에서 추구되는 사회 정의의 구상으로, 가부장제 중심으로 짜인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들이 겪는 차별과 배제, 억압과 착취, 주변화 등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젠더 정의와 아카이브와의 교차점을 연구 중심으로 삼는 ‘비판적 페미니즘 아카이브’(Critical Feminism in Archives)는, 기록학에서 젠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식 아카이브를 진실의 원천으로 참조하기보다는, 이전과는 다른 젠더적 방식으로 독해하고 “더 멀리 보고, 더 넓게 찾고, 더 깊이 파헤칠” 것을 주문한다. 또한 구전 역사 인터뷰, 텔레비전 연설, 소설, 개인 회고록과 같은 ‘주관적인’ 기록생산 양식조차 중요한 기록물로 다뤄 수집하고 아카이브로 보존할 것을 강조한다(Cifor & Wood, 2017, 18).

기록학에 비판적 페미니즘 접근 방식을 접목했던 Caswell과 Cifor(2016)는 한발 더 나아가 기록학 연구가 사회 정의에 닿기 위해서는 인권이라는 개인 권리 기반 프레임보다는 오히려 여성주의에 기댄 돌봄 윤리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들은 “상호 공동의 정동적 책임의 망(a web of mutual affective responsibility)”을 통해 아키비스트를 기록생산자, 기록 주체, 이용자, (사회)공동체의 상호작용을 중재하고 연결하는, 일종의 ‘돌봄 주체’로 개념화한다. 그들이 바라보는 페미니스트적 정동적 돌봄 주체로서 아키비스트의 지위는 젠더로서 여성(성)을 기록관리에 기입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젠더로서 여성 개념이 남성 편향의 관행을 극복할 수 있는 기제로서 기록관리에 수용되고 포용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젠더 정의와 사회 정의까지 추구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라는 점이다.

‘출처로서 에스니시티’를 앞서 강조했던 바처럼, ‘출처로서 젠더’는 소외됐던 젠더 공동체와 비공식 기록으로 취급했던 타자화된 여성성의 목록을 다시 살피는 이론적 프레임이다. 이는 여성 자신의 개인적, 집단적 정체성의 일부로서 기록을 이해하고 생산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분명히 한다. 다시 말해, 현재의 법적, 관료적 출처의 한계를 뛰어넘어, 여성이 출처로서 스스로 역사의 영구적인 보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여성 기록의 젠더적 내용, 맥락, 의미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카이브의 관행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실제로 ‘출처로서 젠더’를 이주여성 아카이브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변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컨대, 이주여성(성)을 기록의 주체이자 공동 생산자로 자리매김한다면, 가정 등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이주여성의 다양한 비공식 기록물을 아카이브에 수용하는 포괄적 접근이

마련될 것이다. 다시 말해, 출처의 패러다임이 기록을 둘러싼 개인적이고 정서적 관계를 담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돌봄과 정서, 주관성과 정동의 가치를 아카이브에 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젠더를 출처로 보는 출처의 재구성 과정은 이주여성 공동체가 주체적으로 기록의 속성과 기록에 대한 소유권을 재구성하고 정교화하는 새로운 출발점을 제공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주여성이 기록생산의 맥락인 출처의 재구성에 개입해 에스닉·젠더 주체성을 확보하고 자신들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접근을 강조했다. 그러나 출처의 재구성이 기록관리 전반에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록생산 이후 보관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이른바 ‘스튜어드십’과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다음 마지막 절에서는 이주여성 아카이브 구성에 있어서 ‘보관’ 방식의 민주적 재구성을 위한 ‘스튜어드십’이 지닌 가능성을 탐색한다.

3.4 스튜어드십(stewardship)의 협업적 기록관리

기록관리에서 출처주의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품 존중의 원칙은 기록이 수집되고 관리되는 방식에서 기록의 원천적 맥락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여기서 ‘존중(respect)’의 의미는 소유권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92년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에서 발간한 핸드북은 기록관에서 기록을 ‘보관한다(custody)’라는 의미를 “물리적 소유권과 법적 소유권을 모두 포함하는 기록의 보호 또는 통제”로 정의하고 있다(Bastian, 2002, 86; Wurl, 2005, 72). 이러한 보관에 대한 정의는 아카이브를 물질적 소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고대에서부터 시작된 아카이브의 관행이다. 기록의 보관 관념은 20세기에 이르러 ‘보관주의(custodianship)’라는 이론적 프레임으로 힐러리 젠킨슨과 테오도르 쉘렌버그에 의해 강화됐다. 즉 보관주의는 물리적 소유권뿐만 아니라 법적 소유권까지 기록보존소로 이양하는 근거가 되면서, 근대 기록관리의 보편적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2000년대 들어 공동체 아카이브가 주목받으면서, 기록관리 패러다임은 공공 기록 중심에서 민간 기록으로 전환을 추동했고 그와 동시에 보관주의 질서를 비판하면서 이른바 ‘스튜어드십’(stewardship)이 제기됐다. 탈보관주의(post-custodianship)에 기반한 스튜어드십은, 법적 소유권은 기록생산의 (원천) 공동체에 그대로 둔 채 물리적 관리 권한만을 기록관으로 양도하는 방식이다. 기록물 관리기능과 통제 권한은 기록관으로 이전하지만, 물리적·법적 (소유) 권한은 여전히 기록공동체가 보유하는 일종의 협업 관리 방식이다. 즉 이전처럼 공동체가 주류 아카이브에 기록의 소유권과 접근 권한을 모두 넘길 것이 아니라 이를 공동체 스스로 보유하면서 아카이브의 보관, 수집, 큐레이션 및 배부에 있어 자치 권리를 유지한다. 공동체가 생산한 컬렉션의 소유 및 통제권을 기록관이 넘겨받는 관례적인 보관방식을 포기하고 공동체 컬렉션에 대한 공동체의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기록관은 컬렉션에 대한 외부 접근권(활용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스튜어드십은 공동체가 자치권과 자기 결정권을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에 해당하며, 자연스럽게 기록에 대한 공동체와 기록관의 공동 소유권 확보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이정래, 2015, 32-33).

스튜어드십은 이렇듯 공동체의 ‘자기 결정(self-determination)’ 권한을 존중하여 그들 스스로 기록을 획득하여 관리하도록 과정을 설계·조정하고 내러티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전통적인 보관주의에 의하면, 개인이나 공동체가 기록을 기록관으로 넘기는 것은 곧 기록의 차후 지속적인 유지와 사용에 대한 소유권과 접근 권한도 기록관으로 완전히 이양하는 것을 뜻한다. 기록관리의 체계적 관점에서, 이와 같은 보관주의적 전통은 물리적 보관과 관리에 그 중요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공동체 아카이브 연구는 보관주의의 전통이 그동안 기록의 출처이자 생산 주체였던 공동체를 기록관리 체계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고 비판한다(Iacovino, 2010; Steven et al., 2010, 64). 전통적으로 보관주의에 입각한 공동체 아카이브 구축과 관리로 인해, 기관에 의해 기록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통제권이 장악되면서 공동체가 공동체 컬렉션에 대한 중장기적으로 접근 권한을 잃게 됐다고 본다.

여기서 잠시 공동체 아카이브의 구축과 스투어드십 프레임의 강조한 대표적인 연구자로 Wurl을 언급해야만 한다. 그는 기록을 생산하는 공동체와 기록을 보존하는 기록관의 지속적인 상호 협업과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이에 기반한 스투어드십이 기록을 기록관에 의한 일방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기록관과 공동체에 의해 공동으로 보유하고 상호투자된 일종의 문화 자산으로 간주하는 보관방식임을 주장했다(Wurl, 2005). Wurl은 스투어드십 구현 사례로 ‘남아시아계 미국인 디지털 아카이브’(South Asian American Digital Archive, 이하 SAADA)를 들고 있다. SAADA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이주민 공동체와의 협력 관계를 강조한다. SAADA의 경우에 이주민 공동체의 풀뿌리 조직들과 기록관의 지속적인 유대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공동체의 필요에 우위를 두고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활동가들이 생산한 기록을 스투어드십에 기반하여 기록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기록을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보존에서부터 기술, 디지털 큐레이션에 이르기까지 서비스하는 급진적인 모델로 나아간 경우라 할 수 있다(Caswell, 2014, 316).

보관주의 전통에서 보면, 기록이 기록관에 보관된다는 의미는 기록이 기록관의 소유가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록관은 기록생산자와 어떠한 관계나 유대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반면에 스투어드십 접근 방식에서 기록은 물리적 재화보다는 문화 자산으로 간주되며 기록관과 공동체가 공동 소유·관리하기 때문에, 공동체와 기록관의 관계나 유대가 향후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속되리라는 것을 함의한다. 즉 스투어드십 접근은 공동체가 기록의 평가부터 정리와 기술, 접근과 보존에 이르기까지 기록관리 과정에 기여하는 ‘참여 아카이브’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참여 아카이브’는 아키비스트에게 아카이브 관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공동체 스스로 정의한 정체성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아카이브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협상하는 다양한 방식을 존중한다(Srinivasan & Shilton, 2006). 공적 기록관리에 있어서 보관주의 관행은 여전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다수 공동체는 보관주의 전통을 지지하지 않고 스투어드십 모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odrigues et al., 2014). 즉 공동체 자신이 법적 소유권을 유지한 채, 기록의 물리적 관리 권한만 기록보관소로 이전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스투어드십 모델은 이렇듯 공동체와 기록보존소의 동거를 용인하는, 즉 ‘공유된 스투어드십(shared stewardship)’의 프레임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Cook, 2013, 21).

‘스튜어드십’이란 기록 프레임의 실제 한국 사회의 이주여성 아카이브 구축과 연결해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지 잠시 들여다보자. 스투어드십은 개념적으로 기록의 유지와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이주여성이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스투어드십 모델에 따르면, 아래로부터의 접근과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이주여성 아카이브 구축을 주문하기에 용이하다. 더불어, 기록에 대해 기존의 단일 소유권 체계에서 공동 소유권 개념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불안정하고 비민주적인 기록화 과정을 방지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이주여성 공동체가 중심이 되면서 아카이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대학도서관, 공공기록관 등 어디에 보관되든 혹은 기록관 형태에 상관없이, 이주여성 아카이브가 이주여성 공동체와 기록관 공동의 소유권에 기반한 스투어드십에 따라 관리되고 보존된다면 관련된 이주여성 공동체는 공동체 집단 기억의 기록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대와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만약 현재 이주여성의 기록을 보관하는 국가기록원이 스투어드십 프레임에 따른다면, 이전의 보관주의 전통에 입각한 기록물 ‘소유권’(ownership) 체계, 다시 말해 기록 보관의 제반 권한을 자연 획득하는 방식을 벗어나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국내 기록관은 이주여성 공동체와 지속적인 관계망으로 들어가는 스투어드십에 근거하여, 이주여성의 관련 기록들이 유지되는 조건을 이주여성 공동체로부터 위임받는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이주여성의 에스닉·젠더 특성이 공적 아카이브에서 ‘민주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고 미래에도 그 방향성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4. 나오면서

데카르트적 이원론과 모더니즘에 기댄 근대적 아카이브 서사는, 공공의 수요에 봉사하기보다는 역사를 통틀어 식민주의뿐만 아니라 유럽(백인)중심주의와 남성중심주의 등 지배권력의 공고화에 기여해 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근대 초기 아카이브는 단지 유명인들이나 정부의 문서를 수집하는 것에 집중해 왔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자본과 권력의 내러티브와 가부장주의를 존속시키는 한편, 기록관리 관행을 통해 여성, 비유럽인, 가난한 약자들을 아카이브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제시켰다. 그와 동시에 공적 아카이브는 종종 ‘중립적이고 가치 지양적인’ 보관소로 간주되었고, 가치 중립성의 그릇된 표상은 백인 특권과 젠더 불평등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근대 기록관리의 기본 원칙인 출처주의에 대한 최근 비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출처주의가 기록의 중립성을 담보하기보다는 오히려 서구 유럽중심주의와 남성 중심주의를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구래의 출처주의가 다양한 다문화적이고 다중 정체성에서 기원한 인식론을 고려하지 않고, 유럽(백인)적이고 남성적 기원을 유일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비유럽인과 사회적 타자를 체계적으로 배제해 왔다는 점이다. 또한 전통적인 아카이브의 보관양식인 보관주의의 역사적 전통 또한 아카이브를 물리적·법적 소유권의 개념으로 접근함으로써, 저(작)자에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 기록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기록물의 보관 관행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

1990년대 ‘아카이브 전환’으로 촉발된 이론적 논쟁은 아카이브를 더 이상 역사의 원천자료가 아니라 역사의 산물이라는 인식론적 변화를 가져왔고, 재현에 있어서도 아카이브가 있는 그대로를 재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재현을 창조하는 공간으로 비판적으로 해석됐다. 이로 인해 출처주의와 보관주의는 기록학계 내부에서 비판적 성찰의 주요한 대상이 됐다. 오늘날 심각한 인구학적 변화와 디아스포라의 절정기에, 기록관리체계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는 이주 구성원의 정체성을 제대로 재현할 수 있는 아카이브를 어떻게 수집하고 재현할 수 있을까를 놓고 시대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이주여성의 기록 문제가 이와 같은 ‘아카이브 전환’의 도정 한가운데 있다고 판단했다. 1장과 2장의 앞부분은 이에 의거 여성학, 사회학, 커뮤니티 연구 등 다학제적으로 다문화 여성주체를 직접적으로 다뤘거나 그 변경에서의 핵심 연구성과들을 검토하고, 이로부터 이주여성의 기록학적 특징과 고유한 함의를 끌어내고자 했다.

2장 마지막 절에서는, 다문화 소수자 정체성을 지닌 이주여성에 대한 문제의식에 착안해 국가기록원의 검색 기록물을 직접 살펴보는 내용분석의 방법을 취했다. 이로부터 본 연구는 그동안 주류문화기관에서 관심 밖의 대상으로 간주돼 관련 기록이 충분히 보존되지 않고 국가기록원의 보존 기록조차 이주여성의 정체성을 제대로 재현하기에 역부족임을 확인했다. 무엇보다 동화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젠더 편향, 보관주의에 입각한 보관방식이 여전하고, 공적 아카이브에서 이주여성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보다는 기록 대리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재현되어 자신의 이해관계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들 사이의 차이도 묻혀 타자화되고 있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어지는 3장 분석에서는 국내 이주여성 아카이브의 재현 문제를 근본적으로 선회하기 위해서는, 이주여성 기록의 근간이 되는 출처와 관리의 이론적 구성 요소들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에 집중해 논의했다. 이주여성을 기록하는 것에 대한 기록학적 담론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개념적·이론적 프레임이 필요한지 주로 해외 선진 연구와 사례에 견주어 이를 구체적으로 살폈다. 본 논문에서 중요하게 취급했던 개념적·이론적

논의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먼저 출처주의의 확장된 논의에 기반해서 기록 주체이자 재현 대상인 이주여성을 기록생산자로 복권할 것을 주장했다. 그와 함께 이주여성을 둘러싼 대표적 사회적·문화적 맥락으로서 ‘에스니시티’와 ‘젠더’를 이주여성 아카이브의 핵심 출처로 보는 이론적 프레임을 제안했다. 이주여성 아카이브에 ‘에스니시티’와 ‘젠더’를 복합·다중 출처로 하는 이론적 프레임을 적용함으로써, 현 이주여성에 대한 기록관행과 재현 양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봤다. 한편으로, ‘출처로서 에스니시티’는 이주여성에 대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동화주의와 수용국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모국의 정체성을 고려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가치를 아카이브에서 구현할 수 있다고 봤다. 다른 한편으로, ‘출처로서 젠더’는 공식 아카이브가 표상하는 이주여성에 대한 젠더 편향을 극복하고 젠더 정의에 입각한 아카이브로 나아갈 수 있는 유효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스튜어드십’이라는 기록 관리의 개념 프레임을 통해 보관주의의 전통을 극복하고 기록관과 이주여성 공동체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벌이고 상호 협업에 기반해 기록관행을 만들어 나가는, 한마디로 공생의 기록 보관방식을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공적 기록 관행이 여전히 이주여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타자에 대해 대단히 협소하거나 제한된 시선 속에서 기록을 재현해 왔음을 살필 수 있었다. 동시에 이들 문제의 해법은 무엇보다도 개념적으로 다양하고 이론적으로 풍요로운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의 급진적 유산을 어떻게 이주여성 기록의 출처와 관리 방식에 통합해 유의미한 방식으로 해석해 낼 것인지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국가기록원 (발행년불명). 국가기록포털. 출처: <https://www.archives.go.kr/>
- 김광미 (2013). 여성구술기록의 콘텐츠 구축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 김기홍 (2012).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현을 위한 이론적 연구: 에스니시티와 다문화주의의 통합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2(3), 445-486.
- 김영란 (2006).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삶과 사회문화적 적응관련 정책. 아시아여성연구, 45(1), 143-189.
- 김은지 (2018). 페미니즘 관점에서 바라본 여성 아카이브의 의미와 설립 방안.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 김혜순 (2008). 결혼이주여성과의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현: 최근 다문화담론의 사회학. 한국사회학, 42(2), 36-71.
- 류한조, 이희숙 (2010). 재현 중심의 기록학 - 담기, 관리하기, 보기. 기록학연구, 24, 3-40.
<https://doi.org/10.20923/KJAS.2010.24.003>
- 민가영 (2011).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정책 수용과정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2(1), 83-104.
- 박종일 (2006). 다문화시대의 정체성 연구를 위한 ‘에스니시티(Ethnicity)’의 개념화: 민족, 인종, 종족, 그리고 소수민족과 연결하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83-285.
- 백영주, 김수자 (2005). 여성사 관련 자료의 보존현황과 관리 방안: 해방이후~1980년대 여성정책 및 여성단체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5(1), 5-21. <https://doi.org/10.14404/JKSARM.2005.5.1.005>
- 송형주 (2014). 이주여성에 대한 시론적 연구: 유형화와 정부대응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2(4), 191-231.
- 신난희 (2015). 생활세계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 아카이브. 다문화와 인간, 4(2), 135-158.
- 신혜정 (2008). 여성단체의 기록물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경래 (2015). 과거사 집단기억과 ‘아카이브 정의’ - 진실화해위원회 아카이브의 동시대적 재구성. 기록학연구, 46, 5-44.
<https://doi.org/10.20923/KJAS.2015.46.005>
- 이경희, 김익한 (2021). 기록되기 전엔 알 수 없는 것들. 기록학연구, 68, 107-150.

<https://doi.org/10.20923/kjas.2021.68.107>

- 이선주 (2006). 국제노동이주와 젠더: 배제와 제한된 포용. *한국여성학*, 22(4), 125-155.
- 이소현 (2014). TV 속의 다문화가정 2세: 이산적 정체성의 포섭과 배제. *미디어, 젠더 & 문화*, 29(1), 5-36.
- 이슬비 (2012). *다문화 기록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용균 (2007). 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네트워크의 특성: 보은과 양평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35-51.
- 이운재 (2017). 여성인권 기록화 전략 연구: 성차별 기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 이은아 (2013). 도시 결혼이주여성의 어머니 노릇과 정체성: 자녀교육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9(3), 115-146.
- 이해웅 (2005). 한국 이주경험을 통해 본 중국 조선족 기혼여성의 정체성 변화. *여성학논집*, 22(2), 107-143.
- 이혜경, 정기선, 유명기, 김민정 (2006).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 조선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0(5), 258-298.
- 임다운 (2017). SNS 기록의 수집 방안 연구: '강남역 여성혐오 살해사건' 관련 트위터 기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정신혜 (2020). 상호문화주의 실현을 위한 한국 이주 무슬림 공동체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전략.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정현주 (2018). *국립여성사전시관의 발전방향*. 국립입법조사처. 출처: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08&brdSeq=23507>
- 조용완 (2016). 대구지역 다문화 유관 기관의 아카이빙 활동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2), 125-155.
<https://doi.org/10.16981/kliiss.47.2.201606.125>
- 조용완 (2017). 도서관 기반의 다문화 아카이브 분석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4), 437-460.
<https://doi.org/10.14699/kbiblia.2017.28.4.437>
- 최재희 (2013). 영국의 마이너리티 역사교육과 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 확대 연구. *기록학연구*, 36, 121-152.
<https://doi.org/10.20923/KJAS.2013.36.121>.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4). *국적별 결혼이민자 체류 현황*. 출처: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5CA0510N
- 행정안전부 (2024. 10. 24.).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 246만 명, 총인구 대비 4.8%, '역대 최대'*. 출처: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08&nttId=113228
- 황정미 (2009). '이주의 여성화' 현상과 한국 내 결혼이주에 대한 이론적 고찰. *페미니즘연구*, 9(2), 1-37.
- Bastian, J. A. (2002). Taking Custody, Giving Access: A Postcustodial Role for a New Century. *Archivaria*, 53, 76-93.
- Bastian, J. A. (2003). In a "house of memory": discovering the provenance of place. *Archival Issues*, 28(1), 9-19.
- Bastian, J. A. (2006). Reading Colonial Records Through an Archival Lens: The Provenance of Place, Space and Creation. *Archival Science*, 6(3-4), 267-284. <https://doi.org/10.1007/s10502-006-9019-1>
- Bastian, J. A. (2014). Records, Memory and Space: Locating Archives in the Landscape. *Public History Review*, 21, 45-69.
- Bastian, J. A., Griffin, S. H., & Lowry, J. (2024). Dedication and introduction to the provenance special issue. *Archival Science*, 24(4), 555-557. <https://doi.org/10.1007/s10502-024-09467-5>
- Burton, A. (2003). *Dwelling in the archive: women writing house, home, and history in late colonial Indi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aswell, M. (2014). Toward a survivor-centered approach to records documenting humanrights abuse: lessons from community archives. *Archival Science*, 14, 307-322. <https://doi.org/10.1007/s10502-014-9220-6>

- Caswell, M. & Cifor, M. (2016). From Human Rights to Feminist Ethics: Radical Empathy in the Archives. *Archivaria*, 81, 23–43.
- Chaudhuri, N., Katz, S. J., & Perry, M. E. (2010). *Contesting archives: finding women in the sources*.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Cifor, M. & Wood, S. (2017). Critical feminism in the archives. *Journal of Critical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1(2), 1–27. <https://doi.org/10.24242/jclis.v1i2.27>
- Cook, T. (2013) Evidence, memory, identity, and community: four shifting archival paradigms. *Archival Science*, 13(2–3), 95–120. <https://doi.org/10.1007/s10502-012-9180-7>
- Dominique, D. (2014). Archival representations of immigration and ethnicity in North American history: from the ethnicization of archives to the archivization of ethnicity. *Archival Science*, 14(2), 169–203. <https://doi.org/10.1007/s10502-013-9209-6>
- Drake, J. M. (2016). RadTech meets RadArch: towards a new principle for archives and archival description. Medium. Available: <https://medium.com/on-archivy/radtech-meets-radarch-towards-a-new-principlefor-archives-and-archival-description-568f133e4325>
- Eastwood, T. (1994). What Is Archival Theory and Why Is It Important?. *Archivaria*, 37, 122–130.
- Iacovino, L. (2010). Rethinking archival, ethical and legal frameworks for records of Indigenous Australian communities: a participant relationship model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rchival Science*, 10(4), 353–372. <https://doi.org/10.1007/s10502-010-9120-3>
- Lapp, J. M. (2023). The only way we knew how: provenancial fabulation in archives of feminist materials. *Archival Science*, 23(1), 117–136. <https://doi.org/10.1007/s10502-021-09376-x>
- MacNeil, H. (2008). Archivalterity: Rethinking Original Order. *Archivaria*, 66, 1–24.
- Nesmith, T. (2006). The concept of societal provenance and records of nineteenth-century aboriginal European relations in Western Canada: implications for archival theory and practice. *Archival Science*, 6(3–4), 351–360. <https://doi.org/10.1007/s10502-007-9043-9>
- Rodrigues, A., Walt, T., & Ngulube, P. (2014). Towards an archival collecting plan for the records generated by the Portuguese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in the Gauteng Province of South Africa. *Archives and Records*, 35(2), 93–109. <https://doi.org/10.1080/23257962.2014.938269>
- Rokay, M. (2021). Critical Ethnography As an Archival Tool: A Case Study of the Afghan Diaspora in Canada. *Archivaria*, 91, 176–201.
- Shakya, M. & Yang, Yunjeong (2019). Migration as a window to empowerment: Nepalese women's experiences in South Korea. *Gender & Development*, 27(1), 105–122. <https://doi.org/10.1080/13552074.2019.1570732>
- Srinivasan, R. & Shilton, K. (2006). The South Asian Web. *Proceedings of the ninth conference on participatory design*, 1, 125–133. <https://doi.org/10.1145/1147261.1147280>
- Stevens, M., Flinn, A., & Shepherd, E. (2010). New Frameworks for Community Engagement in the Archive Sector: From Handing Over to Handing On.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6(1–2), 59–76. <https://doi.org/10.1080/13527250903441770>
- Stoler, A. L. (2010). *Along the archival grai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ood, S., Carbone, K., Cifor, M., Gilliland, A., & Punzalan, R. (2014). Mobilizing records: re-framing archival description to support human rights. *Archival Science*, 14(3–4), 397–419.

<https://doi.org/10.1007/s10502-014-9233-1>

Wurl, J. (2005). Ethnicity as provenance: in search of value and principles for documenting the immigrant experience. *Archival Issues*, 29(1), 65-76.

Yakel, E. & Torres, D. A. (2007). Genealogists as a "Community of Records". *The American Archivist*, 70(1), 93-113.

Yeo, G. (2009). Custodial history, provenance, and the description of personal records. *Libraries & the Cultural Record*, 44(1), 50-64. <https://doi.org/10.1353/lac.0.0062>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o, Yong-wan (2016). Current Status of Archiving Activities of Multicultural Service Agencies and Organizations in Dae Gu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2), 125-155. <https://doi.org/10.16981/kliss.47.2.201606.125>

Cho, Yong-wan (2017). An Analysis on Multicultural Archives Based on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8(4), 437-460. <https://doi.org/10.14699/kbiblia.2017.28.4.437>

Choi, Jae-hee (2013). History Education for Minority Group and the Archival Institutions in Britain.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6, 121-152. <https://doi.org/10.20923/kjas.2013.36.121>

Hwang, Jung-mee (2009). 'Feminization of Migration' and Marriage Migration in Korea : A Theoretical Inquiry. *Issues in Feminism*, 9(2), 1-37.

Jung, Hyun-ju (2018).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National Women's History Exhibition Hall.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Available: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08&brdSeq=23507>

Jung, Sinhye (2020). Establishment and Utilization Strategies of Korea Muslim Migrant Community Archive for Accomplishing Interculturalism.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Kim, Eun-ji (2018). A Study on the Meaning and Establishment of the Women's Archives from a Viewpoint of Feminism. Master's thesis, Hanshin University, Korea.

Kim, Hye-sun (2008). Migrant Brides and Making of a Multicultural Society Sociological Approach to Recent Discourse on "Multicultural Kore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2(2), 36-71.

Kim, Ki-hong (2012). A Study on the Integration and Application of Multiculturalism and Ethnicity Theory in Korea. *Journal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12(3), 445-486.

Kim, Kwang-mi (2013). A Study on the Content Construction Plan for Women's Oral History. Master's thesis, Silla University, Korea.

Kim, Young-ran (2006). Women-Immigrants' Lives and Their Social-cultural Accommodation-related Policy. *Journal of Asian Women*, 45(1), 143-189.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24). Status of Marriage Migrants by Nationality. Available: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5CA0510N

Lee, Eun-a (2013). Urban Marriage Migrant Women's Role of a Mother and Their Identities: Focusing on the Experience of Child Education.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29(3), 115-146.

Lee, Hae-eung (2005). Transformation of Married Chosun-zok (Korean-Chinese) Women's Identity in the

- Experiences of Korean Migration. *Women's Studies Review*, 22(2), 107–143.
- Lee, Hye-kyung, Jung, Ki-seon, Yoo, Myung-ki, & Kim, Min-jung (2006). Feminization of Migration and Transnational Families of Korean-Chinese Migrants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0(5), 258–298.
- Lee, Kyong-rae (2015). Past Affairs–Related Collective Memories and the Archival Justice : The Contemporary Rebuilding of the Archive on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6, 5–44. <https://doi.org/10.20923/kjas.2015.46.005>
- Lee, Kyoung-hee & Kim Ik-han (2021). Things unknown before being recorded.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68, 107–150. <https://doi.org/10.20923/kjas.2021.68.107>
- Lee, Seul-bi (2012). A study on documentation of multicultural community.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Lee, Sohyun (2014).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on TV: The Inclusion and Exclusion of Diasporic Identities. *Media, Gender & Culture*, 29(1), 5–36.
- Lee, Sun-joo (2006).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and gender: Limited Inclusion and Exclusion.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22(4), 125–155.
- Lee, Yong-gyun (2007).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ocio-cultural Networks of Female Marriage Migrant: The Case of Boeun and Yangpyeong.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10(2), 35–51.
- Lee, Yoon-Jae (2017). A Study of Documentation Strategy on Women's Human Rights: focused on 'Records of the Gender Discrimination'.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Korea.
- Lim, Daeun (2017). A Study on the acquisition methods for the SNS Records: Focusing on the records of Twitter about 'Gangnam station murder case'.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 Min, Ga-young (2011). A Research on Experiences of Multicultural Policy by Married Immigrant Women. *Journal of Social Science*, 22(1), 83–104.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4).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is 2.46 million, 4.8% of the total population, the highest ever. Available: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08&nttId=113228
- National Archives of Korea (n.d.). National Archives Portal. Available: <https://www.archives.go.kr/>
- Paik, Young-joo & Kim, Soo-ja (2005).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terials of Women's History: On the Materials of Women's Policies and of Women's Organizations from 1945 to 1980'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5(1), 5–21. <https://doi.org/10.14404/JKSARM.2005.5.1.005>
- Park, Jong-il (2006). Conceptualization of 'Ethnicity' for the study of identity in the era of multiculturalism: in connection with ethnicity, race, tribe, and minority ethnic groups. A collection of papers from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of a sociological conference, 283–285.
- Ryu, Han-jo & Lee, Hee-sook (2010). A Study on Archiving Science Focused on Representation – Putting in, Managing, and Viewing.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4, 3–40. <https://doi.org/10.20923/kjas.2010.24.003>
- Shin, Hye-jung (2008). The study of a better management plan for the archives records of women's organization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 Shin, Nanhee (2015). Multicultural Archives in the Life-world Perspective. *Multiculturalism and Human*, 4(2),

135-158.

Song, Hyung-joo (2014). An Exploratory Study of Migrant Women: Typology and Government Respons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52(4), 191-231.